

무안군 영산강 자전거도로 마구잡이 조성

도로폭 2.5m...정부 지침보다 좁게 설치 심의없이 설계 변경·납품업체 특혜 의혹

무안군이 영산강 자전거도로 연결 구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지침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관급자재구매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공사 현장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6일 무안군에 따르면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일로읍 월암리~삼향읍 임성리까지 6.2k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비 등 19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

달 공사를 발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자전거도로 지침과 어긋나게 설계하고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관련 지침에서는 자전거도로 폭을 1.5m(양방향 3m)로 한다고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양방향 2.5m로 설계해 추진한 것이다. 또 기존 옹벽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이를 데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자체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를 받아야하지만 이 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사업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44필지 보상 역시 단계별로 분류돼 있는 행정절차를 동시이행하지 못해 공사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사 예산의 45%인 8억500만원 어치의 데크(합성 목재) 납품업체로 선정된 H업체가 군과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무안군에서 데크를 구매하기 위해 발주한 25건(23억6900만원) 가운데 24건(23억

6300여만원)을 사실상 독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애초 콘크리트 옹벽 설계는 공사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 데크로 변경했으며, 설계변경과정에서 관련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며 “데크 구매와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 두 달 이상 걸려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관급자재가 공사비 50% 이상인 경우가 많은 이유는 관급자재납품과정에 공무원과 업체간에 유착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도심 관동 철도폐선부지길~양을산 둘레숲길~삼학도 수로길 3대 산책로 연결 ‘목포 둘레길’ 만들어야

목포에 3대 명품 산책로(공원)가 만들어져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산책길을 연결해 둘레길로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1코스는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총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해 조성중인 ‘철도 폐선 부지’가 꼽힌다. 도심을 관통하는 이곳은 접근성이 용이해 산책은 물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동9호광장에서 임성역까지 총 6.2km의 철도 폐선 부지를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현재 청호공원과 동목포공원, 송림공원, 이보공원은 모두 마무리됐고, 석현공원 구간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철도폐선부지 웰빙 공원 조성사업비 38억원이 반영돼 내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속 공원이자 산책로인 철도폐선부지. 이곳은 접근성이 용이해 찾는 시민들이 많다.



양을산 삼림욕장 제1수원지에 조성된 둘레숲길. 우드 칩이 깔려 있어 걸으면서 심신을 치유하는 최적의 산책로로 꼽힌다.

삼학도 수로 길은 갤러리에식장~대삼학도~이남영 공원 길~종삼학도~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소삼학도~어린이 바다 과학관~항으로 이어지는 총 2.2km다.

김창욱 목포시 관광과장은 “삼학도

수로 길은 ‘삼학선너길’로, 철도폐선 부지는 ‘호남 1호선 길’로, 양을산 둘레숲길은 ‘명상·치유의 길’로 이름을 부여해 앞으로 목포의 3대 둘레길 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무안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내달 구축

목포시는 6일 “교통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목포-무안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다음달 준공된다”고 밝혔다.

‘목포-무안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이다. 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버스정보제공으로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4월 착공했다.

이 사업은 14억원을 들여 정류소 43곳에 안내기를 설치하고 차량단말기 170대(목포)와 버스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목포 및 무안 버스 이용자들은 버스정류소 안내기를 통해 버스의 출발, 도착, 배차 시간과 실시간 뉴스, 날씨, 현재시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대 ‘IT+조선 융합연구센터’ 개소

첨단 기술개발·인력 양성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 ‘IT+조선 융합 연구센터’가 지난 2일 개소식(사진)을 갖고 IT+조선 융합연구 및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미래 IT기술의 성장 동력인 첨단 그린 디지털 선박을 위한 응용기술연구를 맡게 된다.

IT+조선 융합연구센터에서는 IT+조선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체 맞춤형 IT조선 융합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신우산업(주), (주)싱크필스, (주)통하테크 등 7개 참여 기업과 전라남도, 현대삼호중공업(주), (주)대한조선, 전남테크노파크 등 20여개 협력기관이 세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세부 프로젝트로는 ▲IT기반 첨단 그린 소재 기술개발 ▲IT기반 선박 생산관리 통합 응용기술개발 ▲선박



장치네트워크기술 연구 ▲선박 안전 운항지원 통신응용기술 연구 등을 통한 특허개발, 시제품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이 있다. 석·박사를 포함한 235명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

초대 정인아 센터장은 “IT+조선 융합연구센터를 열정을 갖고 추진해 문제해결 기술개발과 기업에서 바로

신안군 12일 장산도서 ‘전국 섬 등산대회’

신안군은 6일 “전국 섬 등산추진위원회에서 오는 12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신안군 장산도에서 전국 섬 등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쉬엄쉬엄 느리느리, 자연을 즐기고 느끼는 아름다운 산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등산대회의 코스는 장산다

목적광장에서 출발해 대성산, 함미해변, 갯벌모실길을 거쳐 목교까지 9.8km 구간이다.

당일 배편은 목포 여객선터미널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며 장산도까지 1시간20분이 소요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전북

보안시설은 공개, 공공시설은 비공개

전주시 ‘도로명 주소’ 공개 대상 분류 오류

전주시가 내년부터 새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기 위해 공개와 비공개 대상을 분류하면서 오류를 빚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비공개해야 할 일부 군사 또는 보안시설물 위치를 공개한 반면 일부 공공시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정원, 기무부대, 학생군사교육단(ROTC), 예비군훈련장 등 5곳은 군사·보안시설로 분류돼 ‘비공개’ 대상이다.

하지만 시는 ‘보안대상 시설물’인 국가정보원 전북지부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고도 도로명 주소 검색사이트와 전자지도에는 그 위치를 공개했다.

또 전북대 학군단은 군사시설로 분류해 비공개하면서도 전주대 학군단은 이에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났다.

반면, 공개 제한이 필요없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역위원회,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시내버스 정류소 등은 비공개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에 따라 공개제한과 비공개 시설물을 분류해 ‘도로명 주소’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정부의 ‘도로명 주소’ 업무 편람을 바탕으로 공개 기준에 따라 정리했지만 일부 실수가 있었다”며 문제를 파악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제7회 두승산 청정메밀축제가 열린 두승산 일대. 이번 축제에서는 시립국악단 공연과 유명가수들의 축하공연은 물론 고구마 캐기, 떡메치기, 벌타국, 방아 쪼기, 새끼줄 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음시 제공)

수확기 값비싼 농기계 빌려 쓰세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104종 552대 임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중 사용일수가 짧아 농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작업기 및 소형농기계 등 모두 104종 552대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기술센터는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령화 및 부녀화가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기술센터는 올 가을 수확기에 도 농작물 수확 관련 농기계 사용

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필요한 농기계는 임대해 편리하게 사용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계 점검·정비와 조작기술 및 안전사용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콩 예취기와 탈곡기, 팥속작물 수확기 등 수확기종에 대한 특별 점검·정비를 마치고 농가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특히 임대 수요 집중에 대비해 사용 15일 전부터 사전예약제(063-539-6285~6)를 시행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순창군 보조사업 투명성 높인다

업무편람 제작·배부하고 직원들 관리교육 강화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사업과 관련 순창군이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편람을 제작하는 등 직원들의 교육 강화에 나섰다.

군은 6일 “보조사업 선정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와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보조사업이 급증하면서 보조금 허위신청, 횡령 등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보조사업 관련 수사가

속되면서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의 책임 의무 등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편람은 보조금 제도 설명과 법적 절차, 보조사업의 관리사항과 보조사업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교부 조건,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또 보조사업과 관련 주요 감사방향 이 단순 진위를 확인하는 정산에서 보조사업의 성공여부 검토, 회계처리 흐름 등을 살피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편람에서는 이와 함께 사업안내

시 내부부서 작성과 지출결의서를 통일하도록 하고, 회의록과 경영일지, 금전출납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민간에게 보조하는 경상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요구하는 사업은 20% 정도 자부담으로 부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조시설물에 대한 근거자료 설정, 사업안내문 부착, 증명서류 진위 확인 절차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흐름과 업무 개선사항도 담았다.

군 조태봉 예산담당은 “이번 업무편람을 통해 그동안 민간보조사업에서 제기됐던 형평성과 효율성, 중복지원 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8~18일 군산 전통문화 축제 ‘진포예술제’ 열려

군산의 전통문화 축제인 ‘진포예술제’가 8일부터 18일까지 ‘백도로 예술성지! 희망의 군산예술!’이란 주제로 군산 예술의전당 공연장과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45회째를 맞는 진포예술제는 고려시대 최무선 장군의 진포(군산의 옛 지명)대첩 승전을 기리는 행사로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개막 기념식인 ‘새민금시민 한마당’을 시작으로 연극협회가 ‘눈 먼 아이가 그린 풍경’(9일), ‘아빠들의 소꿉놀이’(11일), ‘그 여자의 소설’(13일)을 공연한다. 전통문화대전, 전국사자공모 전시회도 열린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얼굴없는 천사’ 위한 ‘천년전주 천년사랑 축제’

‘얼굴없는 천사’의 기부정신을 테마로 하여 주민주도로 열리는 문화적 도시재생 축제인 ‘제3회 천년전주 천년사랑 축제’가 지난 4일 전주 풍남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천사축제조직위원회와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도시재생 시범지역인 노송동, 중

양동, 진북동, 인후1·2·3동 주민 및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시재생 시범지역인 노송동 노후주거지구 일원은 지난 2010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사업에 선정돼 주민참여의 도시재생 모델로 꼽히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경마축산고 말산업 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내 유일의 말산업분야 마이스트 고교인 한국경마축산고는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남원시 운봉에 있는 한국경마축산고는 2001년 국내 첫 말관리 분야 특성화고와 2012년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한국경마축산고는 교육부와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희수 교장은 이날 “말 관리사, 경마 기사, 말 조련사, 재활승마 지도사, 생활승마교관 등의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성민기자 bs8787@

정읍시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정읍시는 6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증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시민의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고령에도 불려 없이 사는 도시를 뜻한다. 시는 먼저 국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도시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WHO 인증을 위한 주거, 교통, 사회참여, 일자리, 복지, 보건 등 고령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읍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22%로, 고령화 지수(%)의 3배가 넘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